금주 법구

지혜있는 사람은 차츰, 조용히, 차근차근 정진해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장인(匠人)이 쇠를 벼려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주간) 제 290 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에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룡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성불자

수적우위 불구 위상 정체 친목·신행위주 단체활동

여성불자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적인 면에서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 여성불자다.

그러나 이같은 위치가 여성불교의 수준과 비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도리어 '치마불교' '기복불교'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말해주듯 우리 나라 여성불자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정체성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 산하 여성기구인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 움직임을 빼면 최근 2~3년간의 불교여성단체의 활동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나마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범불교여성운동으로 저변화시키지 못한 채 내부행사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65년 창립돼 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하던 대한불교부인회도 이젠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여성불교단체 모두가 하부조직이 부실해 활동 호흡이 짧고, 여성불자의 사회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없이 구호만 외치다보니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남성 중심적인 종교라는 굴레에 쌓여 여성불자들 스스로 게 달음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여성단체들은 여성불자들 스스로 불교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체적인 불자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조직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만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실질적인 기둥으로서, 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직장직능불자 '대법회 연다'

22일 동국대 만해광장…200단체 5000명 참석예상

'생명과 환경살리기' 주제…헌혈·장기기증서약도

전국의 5000여 직장 직능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대법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생명과 환경 살리기'란 주제로 열리는 전국 직장직능 불자연합대법회에서는 사물놀이·찬불가 공연, 단체 소개 등 다양한 식전행사와 법요식이 봉행된다. 이날 대법회에서는 주제에 걸맞게 환경살리기 걷기대회, 헌혈 및 장기기증서약, 북한어린이돕기 등 대사회적 자비행을 실천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의의 무엇보다 전국의 직장 직능 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합대법회를 계기로 각 직장 직능 불자들간에 활발한 교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직장 직능 불자들의 결속력과 불자라는 자긍심이 높아져 각 직장 직능 법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자회가 대부분 거사들이 중심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거사들의 불교참여도 꾀할 수 있으며 직장인 불자들이 생명나눔, 환경보호운동 등의 보살행에도 적극 앞장서 불자의 원력을 사회에 회향하는 새로운 신행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배경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존재하는 직장 직능 불자회는 불교의 인적 역량을 높이고 불교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직장 직능 불자회가 침체되기 시작해 98년에는 많은 불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몇몇 불자회만이 겨우 명맥을 잇는 실정이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 직능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직장직능신행단체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행단체 임원들은 각 직종별로 연합회를 구성해 법사 섭외 문제, 법회장소 확보 문제 등 직장법회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단체 감사원·행자부·경기도청 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에 소속된 40여개 불자회, 서울·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10여개지회 초중고 교사들이 모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41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병원연합회 10여개 불자회, 한국은행·농수축협 등 금융단 10여개 불자회, 전국 22개 지역 개인택시 불자회인 한국운불련, 한전·서울지하철공사 등 20여개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그 외에 일반회사 소속 불자회 등 전국의 200여개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50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문화주권 수호 '국민행동'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1일 탑골공원에서 '문화주권 수호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고영배 기자

보시금 소득공제 10%로 확대

올 연말정산때 적용

사찰에 내는 보시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5%에서 10%로 확대된다. 국회는 10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 학술 사회복지설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1년 과세대상 근로소득(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보시금 공제액 100만원이 다시 근로소득에서 빠져 900만원이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는 또 이후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이나 강연료 등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환경위원회령 시행

조계종 "친환경 종단운영"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7일 종무회의를 열고 환경위원회령을 제정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위원회령은 11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됐으며,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문화·생태·종교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1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으로 구성된다.

환경위원회는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찰환경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 및 협의 △환경 관련 대정부 사항 △사찰환경 문제의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 △총무원장이 부의한 사항 △기타 종단 및 사찰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정성운 기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은 13일 오슬로 소재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가진 수상자 발표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0년간 계속돼 온 한반도 냉전과정에서의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장을 여는 데 기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기는 김 대통령이 처음이며, 노벨평화상의 79번째 수상자가 됐다.

노벨위원회는 "김 대통령이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남북간 화해와 대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올림픽에서의 남북한 동시입장 등 가시적인 평화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시상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조계종 축하메시지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수상자 발표 직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김 대통령의 수상이 통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되고, 지역갈등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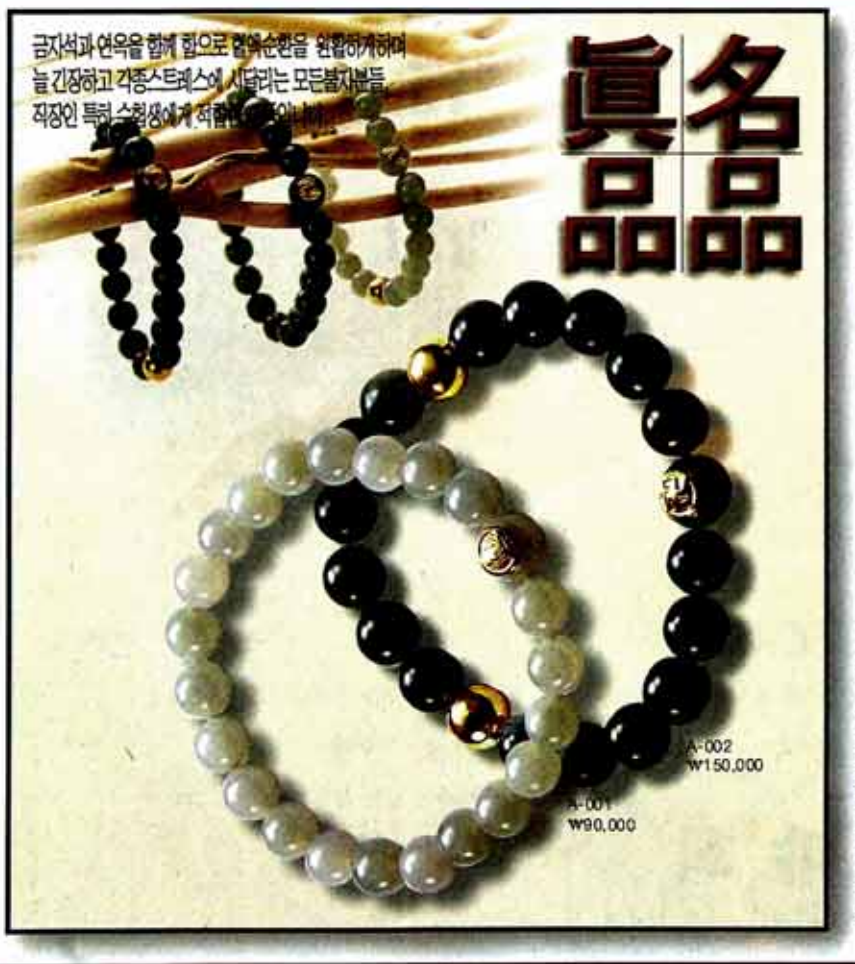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 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6~8명 정도
-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릎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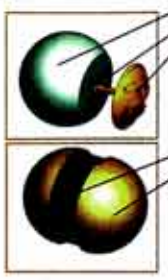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녀)



弗心의 깊이 만큼이나 깊고 찬란한 보석염주!
神祕한 氣가 발산하는 생명 에너지 광물!

弗心 의 깊은 마음으로 최상급의 연옥만을 갈고 닦아 예술로 승화시킨 보석염주를 탄생 시켰습니다.

옛 부터 오늘날 연옥이 신변 장신구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석처럼 연옥은 실리콘과 산소를 함유하고 이으며 또한 사람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즉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서 갖추어야할 경도는 6~6.5이며 인성이 아주 뛰어난 보석입니다.
다른 저가의 옥 제품과는 비교가 될수없으며 모든 정성과 불심을 담은 귀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부처님상이나 관 자체(14K (Gold) 로 양각으로 이름답게 조각되어 고정홀에 삽입되어 튼튼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의 모든사진은 법의 자격을 입습니다.

城倉宝石 SUNG CHANG JADE C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
TEL : 737-6334 FAX 732-6336
http://www.scjade.co.kr